



즉시 배포용: 2021년 7월 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공원 관리인이 알러지 반응을 치료하는 에피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서명

산림 관리인, 공원 관리인 및 환경 보호 경찰관에게 자동 분사 장치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소유 및 관리하도록 인가하는 법안(S.4375/A.4652)

뉴욕주립공원(New York State Parks)으로 서명된 법안, 2020년 방문 기록 참조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산림 관리인, 공원 관리인 및 환경 보호 경찰관이 에피펜을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법안(S.4375/A.4652)에 서명했습니다.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벌에 쏘이거나, 벌레에 물리거나, 음식 알러지가 있거나 운동으로 인한 쇼크와 같은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.

"이전보다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자연 경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심각한 알러지 반응에 취약한 경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라고 **Cuomo** 주지사는 말했습니다. "이러한 상식적인 법안을 통해 뉴욕주 공원과 다른 자연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다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에피펜을 사용하고 뉴욕 시민들은 야생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을 통해 등산객, 자전거 이용객 및 기타 야외 여행객들이 뉴욕의 평화로운 자연 지역을 탐험할 때 더욱 안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"

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 반응인 아나팔락시스(Anaphylaxis)는 미국인 50명에 한 명 꼴로 발생합니다. 뉴욕주의 여러 공원과 산림은 의료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이 법안을 통해 의료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 공원 및 산림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피펜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.

Jim Ted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독립기념일 주말과 여름 시즌이 다가왔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했던 엄청난 고립을 겪고 난 후, 뉴욕 시민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우리의 야영지와 주립공원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. 야외 활동을 하려는 등산객, 야영객, 수영객, 사냥꾼 및 소풍객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. 불행히도 그들은 곤충에게 물려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공원 관리인, 산림 관리인 및 환경 보호 경찰들이 심각한 알러지 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명을 구하는 에피펜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뉴욕주의 700명에 이르는 전담 공원 관리인, 산림 감시원 및 환경 보호 경찰이 순찰 중에

에피펜을 휴대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새 법안에 서명해주신 **Cuomo**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"

Angelo Santabarba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여름 시즌이 다가왔으며 이 시즌은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모든 공원과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. 멋진 야외는 끝없는 탐험과 모험의 원천을 제공하지만,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음식, 벌레 물림 및 벌 쏘임에 대한 예기치 않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산로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환경 보호 전문가가 에피펜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